

광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 로드맵 확정

4차산업위원회 상반기 정기회의 4대 전략 방향·10대 전략과제 설정 5년간 4단계 미래형 성장도시 조성



광양시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정인화 시장·가운데)는 최근 시청에서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가 '4차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광양시는 최근 시청 상층실에서 '광양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양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올해로 5년 차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4차산업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박람회,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정책 동향 파악과 신규사업 발굴 등을 진행했다. 시는 철강과 항만산업을 기반으로 한 '4차산업혁명' 큰 줄기를 세우며 앞으로 지역 먹거리 산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과 4대 전략 방향, 10대 전략과제도 설정했다. 광양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정보 저장)를 아우르는 'ABC 중심의 스마트 행정 미래산업 도시'를 내걸고 있다. 혁신형 탄소중립 완성 도시를 구축하며 기업과 인구가 늘어나 지속 가능한 미래형 성장도시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5년간 추진할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은 모두 4단계로 구성했다. 1단계는 수소·이차전지 산업 기반(인프라)을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 준비와 데이터 경제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단계는 에너지 전환기 새로운 사업안을 육성하고, 3단계에서는 친환경 미래산업 도시로 도약하는 것이 골자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기업과 인구가 유입되는 미래형 성장도시로 우뚝 서는 것이 최종 목표다. 기본계획을 뒷받침할 4대 전략 방향도 세웠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고 ▲미래 전환경 도시 경제 기반을 구축 ▲스마트제조 스마트 서비스 구현 ▲4차산업혁명 융합 플랫폼 기반조성 등도 추진한다. 10대 전략과제에는 ▲철강산업 산업경쟁력 강화 ▲항만을 활용한 디지털 신성장 동력 개발 ▲친환경 에너지 산업생태계 구축 ▲데이터 기반 미래산업 육성 ▲핵심 인프라 중심 탄소중립 전환 ▲블록체인(데이터 분산 처리기술) 기반 행정 구축 ▲

생활밀착형 지능형 서비스 제공 ▲4차산업혁명 제도 및 기반 구축 ▲미래 신산업 기술인력 육성 ▲광양시 미래 인력 육성 등이 포함됐다. 광양시는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29개 사업을 마련하고 각 부서가 추진할 시행계획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향후 5년간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만큼 4차산업 관련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기"라며 "기존 산업의 재편과 초연결·초지능·초융합으로 파급성이 큰 신산업 발굴로 광양 산업생태계의 변화를 꾀하고, 체계적인 4차산업혁명 대응을 통해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군 '올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한 눈에

88개 제도 담은 책자 발간

보성군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한 군정 책자를 발간했다. <사진> 일차·농림·해양·인구·관광·안전 등 6개 분야에서 바뀌는 88개 제도를 담았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일차·경제 분야에서 보성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월 30시간 활동 시 27만원을 지급한다. 지방세 부담도 줄어든다.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 개선을 통해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가 2020년 수준으로 완화된다. 부동산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경영비 절감,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지원 제도들이 시행된다. 보성군 자체 사업으로는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통식품 융복합 활성화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보성군 소재 전통식품 관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쟁제를 준비 중인 농업 법인·단체가 대상이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양·환경·산림 분야에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이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까지 확대된다. 청년어촌 정착 지원금이 10만원씩 인상되며, 탄소포인트제도 확대 시행된다.

관광·문화·체육 분야에서 좋은 책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은 본인부담금이 기존 60%에서 50%로 변경되며 지원율이 향상됐다.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 스포츠 참여를 위해 실시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기존 8만5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지원비가 상향됐으며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다. 보건·인구·여성 분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인상과 선정기준 완화가 눈에 띈다. 부모급여 신설로 만 0세의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주민들이 새로운 시책을 알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사랑상품권 올해도 10% 할인 연중 판매

700억원 규모 발행

광양시는 올해 700억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며 연중 10%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이며, 결제할 때 10% 상당(월 최대 10만원)이 적립된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앱 '착'(chak)을 통해 신청하거나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한 등 금융기관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오는 5월에는 우체국 11곳에서도 광양사랑상품권을 살 수 있다. 광양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 역의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뒤 지난해까지 3124억원 상당이 판매됐다. 상품권 사용은 광양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신청은 시 홈페이지나 지역경제과, 읍·면·동사무소나 모바일 앱 '착'에서 할 수 있다. 단, BC카드사나 농협카드에 가맹을 해야만 결제할 수 있다. 시는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방법과 구매

방법에 대해 전단지, 이통장회의, 소셜미디어(SNS), 시 홈페이지, 언론 광고, 현수막 등을 통해 이달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정윤균 광양시 지역경제과장은 "고급·고물가·고금리 '3고' 현상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하고 있지만, 성장과 안정으로 시민 모두가 잘사는 광양이 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중 10% 할인되고 소득공제 30% 혜택이 있는 광양사랑상품권을 많은 시민이 사용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광양시는 고로쇠 수액 채취 제철을 맞아 최근 옥룡면 동곡리 약수제단에서 '제40회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를 열고 백운산 고로쇠 약수의 풍성한 채취와 광양시민의 안녕을 기원했다. 전국 최초로 산림청 고로쇠 수액 지리적 표시 제16호로 등록된 광양 백운산 고로쇠는 오는 3월31일까지 채취·판매한다. <광양시 제공>

공직 청렴도 민원인에게 직접 묻는다

고흥군 '청렴해피콜' 시행

"공직 청렴도를 민원인에게 직접 묻는다." 고흥군이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민원인에게 직접 묻는 "2023 청렴 해피콜"을 본격 시행한다. '청렴 해피콜'은 업무 담당 공직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했는지를 확인하고, 부패행위, 업무처리 불만족 사유 등을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듣고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군은 우선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기존 운영방식을 변경해 올해는 민원인들에게 직접 청렴 서한문과 설문지(460건)를 발송해 우편으로 회신하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해 청렴 해피콜을 운영한다.

청렴 해피콜 조사결과 민원인의 만족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 분석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지난 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전년도보다 향상된 3등급을 획득했다. 2023년에는 청렴과 친절이 고흥군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공민 고흥군수는 "청렴 해피콜을 적극 활용해 부패행위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청렴·친절이 고흥의 대표 브랜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순천시, 청소년성취포상제 참여 청소년 모집

꿈 찾아가는 자기성장 프로그램

순천시는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하며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성취포상제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 청소년성취포상제는 봉사·신체단련·자기개발·탐험활동·진로개발 등 5가지 활동 영역 중 4가지를 선택해 일정 기간에 자기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하며 숨겨진 끼를 발견하고 꿈을 찾아가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다. 연령에 따라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만 14세-

만 24세)와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만 7세-만 15세)로 구분해 운영되며, 활동 기간에 따라 동장, 은장, 금장 단계에 도전할 수 있다. 목표를 달성한 청소년에게는 국제포상재단(IAF)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인증서가 주어지며, 우수활동 청소년에게는 여성가족부장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을 수여한다. 청소년성취포상제 참여방법은 순천시청소년문화의집(061-749-4368) 또는 순천시청소년수련관(061-749-66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 시내버스 3월부터 5G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순천시는 3월부터 관내 모든 시내버스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순천 시내버스 176대에는 4세대(4G) 와이파이기가 구축돼 있다. 최근 스마트 기기와 고품질 동영상 스트리밍 등 대용량 콘텐츠 이용자 증가로 기존의 4세대 기반 공공와이파이는 효용성이 떨어진다. 5세대 기반 공공와이파이 시스템은 기존 4세대와 비교해 최대 10배 이상 네트워크 속도가 빠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거북선축제 지역 온라인축제 대상 수상

우수온라인축제 대상 수상

여수시의 대표축제인 여수거북선축제가 '2022지역온라인축제'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5회 연속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여수거북선축제'가 축제장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2022지역온라인축제'는 전국 지자체의 온라인 축제를 대상으로 온라인 참여 서비스와 시민 참여율 및 만족도 등을 평가했다. 지난해 열린 전국 310여 개의 온라인축제(온오프라인 병행 포함)가 대상이 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여수거북선축제가 전국 어디서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모바일게임 '임진왜란', AR 증강현실을 활용한 '거북선을 찾아라', '온라인 전 국민 거북선 퀴즈' 등 온라인 콘텐츠를



여수시가 사단법인 K-문화융합협회 주최로 열린 '2022지역온라인축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개발해 운영한 바 있다. 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 박정명 이사장은 "온라인 콘텐츠 개발의 노력이 인정받아 매우 뿌듯하고 기쁘다"며 "올해도 여수시와 협업체 대 체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kwangju.co.kr>

여수시 관계자는 "온라인 축제 첫 시도에서 큰 성과를 끌어냈는데 의미가 크다"면서 "올해도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해 많은 사람이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kwangju.co.kr>

곡성군 매주 목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

곡성군이 오는 23일부터 매주 목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 '목요 야간 민원실'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군청사 별관 1층 민원실에서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여권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곡성군 관계자는 "야간 민원실 운영을 통해 민원업무에 시간적 제약을 받았던 군민들에게 편리한 민원 처리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민원실 OK민원1팀(061-360-261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여수시 "발작물 토양개량제 신청하세요"

24일까지...4만포 농업인에 지원

여수시가 발작물 토양개량제(갈습유황비료) 지원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여수시와 지역농협은 올해 2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4만포의 발작물 토양개량제를 농업인들에게 지원한다. '갈습유황비료'는 작물의 생육을 촉진해 품질과 저장성을 높이고 토양을 개량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kwangju.co.kr>

해당 비료는 구입비의 70%(시비 30%·농협 40%)가 지원된다. 농업인은 3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돼 1000㎡ 이상 경작하는 발작물 재배 농업인이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yeosu.go.kr)나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6)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kwangju.co.kr>